‘다시 민주주의’ 융합예술축제 열린다

지역문화교류재단, 10일 5·18광장
지역예술가·오월어머니회·시민 참여
토크쇼·공연 등 인문과 예술 한마당

지난해 펼쳐진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축제 장면.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광주 오월의 시공간의 확장과 광주정신의 세계화를 모색하는 융합예술축제가 열려 눈길을 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예술가를 비롯해 오월어머니회, 시민이 함께하는 인문과 예술이 융합된 축제의 장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재단)은 오는 10일(오후 6시) 5·18민주광장에서 인문예술축제 한마당을 연다.

재단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 후원, 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번 한마당의 주제는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융합예술축제는 주제가 말해주듯 위기의 시대 집단 지성에게 길을 묻고 시민들과 함께 그 답을 모색해가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무엇보다 6월 10일이라는 날짜가 환기하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 5·18 진상규명 등 민주화를 외치던 6·10항쟁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번 행사의 총 감독은 주홍 작가. 주 감독은 “올해 행사는 6·10항쟁에 담긴 정신을 기억하며 날을 잡았다”며 “‘광주 오월’의 시공간의 확장과 아울러 광주정신의 현재화, 세계화를 견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감독의 말은 대동세상의 마당을 구현해보자는 취지로 읽힌다.

축제 개막은 얼쑤, 굿패마루,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타악과 농악이 어우러진 ‘민주한마당’ 공연으로 시작된다. 이후 ‘광주정신 토크쇼’에서는 임재성 KBS시사직격 진행자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응답하라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민들과 토크쇼를 진행한다.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 외교 관계와 남북 평화, 광주 정신 등을 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평화의 메시지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시간도 있다. ‘대동의 춤+음악공연’에서는 최보결 안무가와 오월어머니들이 5·18 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치유의 춤을 추며 평화의 메시지를 몸짓으로 보여준다.

이어 승지나 작곡가의 창작곡과 오월의 노래, 나은영과 앙코르 첼버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아울러 펼쳐지는 ‘오월정신 릴레이드로잉’에서는 김봉준, 한희원, 홍성담 등 50명의 전문작가와 공모를 통해 참여한 시민작가 18팀(가족) 60여명 등 100여 명이 5·18민주광장에서 ‘다시 그리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걸개그림을 그린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김덕진 재단 이사장은 “무엇보다 3년 연속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춤추고 소통하는 예술축제를 개최하게 돼 뜻 깊다”며 “향후에도 광주정신과 문화 민주주의를 느끼고 체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선희라온예술단, 광주무용제 대상 수상

수상작 ‘애한’, 연기상 김시원…10월 전국무용제 참여

김선희라온예술단이 대한무용협회광주광역시지회(무용협회 지회·지회장 나인숙)가 주관한 제32회 광주무용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수상작은 ‘애한’(哀恨). 〈사진〉

무용협회 지회는 지난 3일 개최한 제32회 광주무용제에서 김선희라온예술단(안무 김선희)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기상에는 김선희라온예술단 김시원에게 돌아갔다.

수상 ‘애한’(哀恨)은 한국의 잔 다르크라 할 수 있는 고려 귀주대첩의 숨은 영웅 ‘설죽화’를 모티브로 한다.

김선희 안무가는 “우리나라에도 잔 다르크 같은 여자 영웅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했다”며 “고려 병사들의 선봉에서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여자장수 중의 한명인 귀주대첩의 숨은 영웅 ‘설죽화’를 작품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역사서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한국의 잔 다르크라 할 수 있는 설죽화를 통해 그녀가 일궈낸 값진 성취를 춤으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상작 ‘애한’(哀恨)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무용제의 특성에 맞게 장마다 안무자의 의도가 맞는 작품 줄거리가 있고 또한 무용수들의 감정표현력과 춤 기량이 우수하다는 평을 내놨다.

이번 경연에는 ‘에뚜왈발레단’, ‘황채은무용단’, ‘프레젠트무용단’이, 솔로 앤 듀엣 부문에는 ‘정아영, 김현주’, ‘박소연’이 참가했다.

수상작 ‘애한’(哀恨)은 오는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 광주시 대표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열린 광주무용제에서는 서울 본회 초청공연으로 이동숙의 ‘부채입춤’이 선을 보였다. 작품은 화려한 부채를 춤사위에 접목해 기교적 선의 움직임을 중요시 하는 춤으로, 입타령을 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성을 지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콘서트 인 북구’ 2번째 공연
‘고래야’ 29일 북구문화센터

고래야 공연 장면. 〈북구문화센터 제공〉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의 음악이 결합된 융복합 공연을 선보이는 고래야가 관객을 찾아온다. 북구문화센터의 브랜드 공연 시리즈 ‘콘서트 인 북구’ 두번째 공연으로 고래야가 오는 29일 무대에 오른다.

‘Beyond The Limt : 한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2020년 발매된 정규 4집 ‘박수무곡’의 레퍼토리 공연으로 꾸며진다. 고래야는 한국 전통 장단과 박수의 만남을 테마로 보편적인 댄스 비트 안에서 대금, 거문고, 장구가 만들어 내는 한국의 멋을 표현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데뷔한 고래야는 전통악기인 거문고, 대금, 장구 연주가들과 기타리스트, 퍼커셔니스트, 보컬리스트로 구성된 국악·월드뮤직 그룹이다. 한국 전통악기 개성을 견지하면서 세계의 다양한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접목해 새로운 스타일의 한국음악을 선보여 왔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한중 미술인들, ‘상생문화’ 함께 열어가자

한중미술교류전, 30일까지 금봉미술관…작가 18명 참여

최근 한·중은 어느 때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깝고도 먼’ 관계였던 두 나라가 작금에 처한 상황은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한중 미술인들의 문화적 미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져 눈길을 끈다.

오는 30일까지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 제1전시실에서 진행되는 한중미술교류전이 그것. ‘상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상생의 문화를 함께 열어가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한중미술협회는 중국 북경 칭화대학 미대교수직을 퇴임한 차홍규 교수를 명예회장으로 결속된 예술단체다. 그동안 협회는 한국과 중국 양국을 오가며 활발한 전시를 이어오며 문화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중국은 세계적 사진작가이자 북경의 798에 있는 선아트스페이스 관장인 양즈가 북경 측 지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 작가 13명과 중국 작가 5명이 참여한다. 서양화, 전통회화, 사진, 판화, 민화, 서예 등 장르도 다채롭다.

한국에서는 차홍규, 양병구, 한서경, 장복금, 이응선, 신광순, 정원일, 김국, 장우순, 김정희, 이병선, 오미자, 이지아 등이 참여한다.

중국에서는 리쑨, 양옥현, 양즈, 차신, 최광지 등이 출품했다.

양병구 작 ‘Self love’

한편 금봉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상생’이 주제인 만큼 한중 두 나라의 미술인들이 다양한 작품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미감을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술적 영감을 토대로 양국의 상생문화의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영각 작 ‘아홉, 구름, 꿈’. 〈ACC재단 제공〉

ACC 미디어아트, 광주비엔날레 밝힌다

조영각 ‘아홉, 구름, 꿈’, 문창환 ‘조립된 풍경화’ 야외 전시

ACC 미디어아트 작품인 조영각 작가의 ‘아홉, 구름, 꿈’과 문창환 작가의 ‘조립된 풍경화’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야외에 전시된다.

ACC재단은 ACC 미디어아트 작품 2점을 오는 10월까지 북구 비엔날레전시관 광장에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과 광주 북구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3 북구 비엔날레 문화콘서트’ 연계 행사로 진행된다.

광주 북구가 주최하는 비엔날레 문화콘서트는 매주 토요일(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다양한 행사로 펼쳐진다.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외에도 돗자리영화제, 체험, 공연 등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조영각의 ‘아홉, 구름, 꿈’은 조선시대 국문소설 ‘구운몽’을 인공지능기술을 활용 구성했으며 문창환의 ‘조립된 풍경화’는 광주의 동물설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한편 ACC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광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ACC의 다양한 콘텐츠를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since 1982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